

성년례 시연을 통해 본 성년례 모델 개발의 탐색적 연구 - 참가 대학생을 중심으로 -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Coming-of-Age-Ceremony through a Performance of the Coming-of-Age Ceremony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 정 우
강 사 김 연 화
김 경 아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 : Jung Woo Lee

Lecture : Yeon Hwa Kim

Kyung Ah Kim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 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Coming-of-Age Ceremonies and to suggest the building blocks of a modern program for Coming-of-Age Ceremonies. This will be done through the study of the consciousness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such ceremonies.

This study was compiled from 262 data sources.

The major findings as follows:

1. On evaluation of the opinions of student that have participated in Coming-of-Age ceremonies, a conclusion was drawn that such ceremonies were suitably held at age twenty. Also, drawn from the study was that most students preferred a event interweaving traditional ceremonies with blessing ceremonies and viewed that the current vogue of presenting expensive gifts was not suitable. Pertaining to the type of gifts preferred, school supplies and inexpensive accessories were on top of the list. In addition, a great majority agreed that traditional Coming-of-Age Ceremonies

were difficult to perform but interesting and instructive.

2. It was discovered that a substantial majority perceived the need of Coming-of-Age Ceremonies and drew satisfaction from such events.

The study also showed that satisfaction in school life and activeness in extra-curricular functions wa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student's recognition of the need for and the student's satisfaction drawn from Coming-of-Age Ceremonies.

3. It was shown that positive correlations existed between the need for and satisfaction drawn from Coming-of-Age Ceremonies and recognized the need for the comparison of modern and traditional Coming-of-Age Ceremonies and the establishment a desirable concourse of such ceremonies.

I. 서 론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생이 진전됨에 따라 그 시기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및 기능 등의 발달과업이 요구된다. 특히, 성인으로서의 입문(入門)이 이루어지는 청년기(adolescence)는 인간발달적 측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서, 이 때 요구되는 지적·정서적 발달과업의 적절한 수행은 이후의 전 인생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자립할 수 있는 초석(礎石)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20세 전후로 규정되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국가적으로 전통이 단절된 역사적 배경과 인본주의는 배제되고 물질주의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문화 속에서 제대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여 성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정립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인적 인간교육이 결여된 현 교육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청년자들의 미성숙한 사회병리 현상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년기에 처해 있는 개인이 성인의 올바른 역할을 습득·성장케 함으로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인생행로를 판단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적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

으로 사료된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성년에 이르면 개인의 자기관리(自己管理)와 사회인으로서의 대인관계(對人關係)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관례(冠禮)』¹⁾라는 의례를 통해 어른이 됨을 일깨워주고 또한 인정해 주는 교육적 기능을 담당했었다. 비단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그 사회의 장로가 그에게 사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인정해 주는 의식을 치렀으며 일부지역에서는 목숨과도 바꿀 만큼의 고통이 수반되는 의식을 통해 성인임을 인정해 주었다. 이와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생의 성장과정에 있어 변화된 책무를 인식케 하는 성인이 되는 과도기적 계기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1894년 발발한 갑오경장에 따른 두발 및 복식의 변화, 호적법의 제정, 서구문물의 유입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전통인 『관례(冠禮)』 및 『계례(笄禮)』는 1940년대까지 양반가에서 행해지다가 점차 그 의미와 절차가 소멸되었었다. 본래 관례의 의미는 외형적인 변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연령에 달하여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논어(論語)와 효경(孝經)에 능통하여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알 수 있는 시기에 행하였다. 이때 남아에게는 어른의 세 가지 의복을 바꾸어 입히고 모자를 씌우며 여아에게는

1) 관례는 본래 중국과 한국에서만 행해지던 독특한 의식이지만, 통과의례로서의 성년식은 미개민족이나 문명민족간에 예로부터 있어 왔다(전경수역, A. 반 계념 저(1985), 서양에서의 성년식(initiation)과 같다(閔濟, <冠禮>, 한국문화사대관 I,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575).

어른의 복식을 입히고 비녀를 꽂는 외형적인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를 두었다. 즉, 관례 및 성년례는 유년기와 성년기를 일정한 의식을 통해 명확히 구분 지어 줌으로써 개인의 의식 변화와 함께 성년에 걸 맞는 행동의 변화까지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민법상으로는 만 18세를, 선거법 상으로는 만 20세를 성년의 기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년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할 수 있게 하나의 획을 그어 줄 상징적인 기회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상업주의에 휘말려 성년례를 대신한 왜곡된 『성년례』행사가 행해지고 있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성년례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으로도 새로이 개정된 건전 가정의례(1999. 2. 8)에 다시 성년례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신체적 조건이 만 20세가 되는 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책무를 일깨우기 위한 그 형식과 절차를 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고유의 전통을 살리고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조화된 형식과 내용의 보완이 계속 이루어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성년례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이정우·김연화·김경아, 1999). 또한 성년례를 경험한 주인공인 성년자들의 요구도 및 선호도에 대한 기초연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성년들만의 독특한 하위문화로서 성년례가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실증적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과 현대의 전환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년례에 관한 유래·의의·필요성 및 선행연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재조명하고 직접적으로 성년례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식을 살펴봄으로써 대학 내 성년례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여 현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하나의 성년례 프로그램을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성년례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하여 성년례가 전국적으로 활

성화되고 궁극적으로 미래의 주역인 성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줌과 동시에 하나의 의례규범으로서 정착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년례의 유래 및 현황

우리 나라 성년례의 역사는 멀리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최남선(1948)은 성년으로서의 계율을 가르치고 명산대처를 순회하며 연마시켰던 화랑제도도 진보된 성년례의 한 형태로 보았으며 고려시대에도 광종, 예종, 의종 때 왕세자의 관례를 행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高麗史). 즉, 기록상으로 고려조 광종 16년(965)부터 시작된 관례는 조선시대를 거쳐 1940년까지 주로 왕실, 문무관, 사대부 등 양반 계급에서 행해져 왔으며 서민 계급인 전통 농촌사회에서는 마을의 정자나무 주위나 마을 어귀에 있는 들들을 들어올리는 힘사람을 하여야 한 사람의 성인 몫을 인정받는 진세(進世)라는 풍속이 있었다(박대순, 1987; 최덕원, 1987). 그러나 조선조 후반기 청나라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강요된 변발풍습과 을미개혁 시 내린 단발령 그리고 조선왕조의 몰락과 서구 문물의 도래에 따른 유교사상의 쇠퇴 등으로 인해 약 1940년경부터 관례가 거의 소멸되었다. 그 이후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지켜오다가 1975년부터 가정의 달인 5월로 옮겨 5월 6일로 변경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날이 휴일과 겹쳐 기념행사를 갖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1985년부터는 매년 5월의 셋째 월요일이 성인의 날로 지정되었고(김상보, 1989; 김득중, 1997) 1998년부터는 5월의 셋째 주를 성년주간으로 정하여 각 대학이나 직장, 사회단체별로 기념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행히 과거 ‘가정의례 준칙’에서 제외되었던 성년례가 최근 공포된 ‘건전 가정의례(1999. 2. 8)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새로이 포함됨으로써 성년례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 법률에는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성년선언 등의 내용과 함께 성년례의 시기를 만 19세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²⁾

현재 대학 내에서 성년례 행사를 치른 적이 있거나 행하고 있는 대학은 건국대학교, 대진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경원전문대학, 오산전문대학, 상지대학교 병설전문대학, 한림정보산업대학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대학과 사회기관, 문화체육부(現 문화관광부) 및 성균관 여성유도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년례의 경향을 종합하여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공통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만 20세 또는 그 대학생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5월의 셋째 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하되 주최측의 형편에 맞게 그 일시가 융통성 있게 정해지고 있었다.

둘째, 개인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직장이나

대학의 주관 하에 관례와 계례가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었다.

셋째, 복장 면에서는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여전히 관을 씌우거나 비녀를 꽂아 주는 등의 절차가 삽입되어 있었다.

넷째, 현대식 성년례에서는 성년선서, 성년선언, 특강, 수훈 등의 절차가 삽입되어 큰손님의 역량에 따라 교육적 내용을 다양하게 접하고 있었다.

다섯째, 학교나 단체, 사회기관에서 주관하게 됨으로서 가족, 친지 이외에 학교관계자까지 참여하는 등 참여자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특별공연 등으로 축하와 즐거움을 배가하는 행사로 정착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성이 부족한 복식상의 제 문제, 집체 성년례의 경우 개인적인 경건함과 엄숙함이 결여되기 쉽다는 단점, 주관이 학교측으로 옮겨지면서 부모의 역할이 거의 사라진 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1997년 처음에는 가정대학의 가정관리학과 개설 교양과목인 생활예절 교과목을 중심으로 현

* 새로 개정된 健全 家庭儀禮 준칙 부칙(1999. 2. 8)

1. 성년례의 식순·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제6조 2항 관련)

가. 개별 성년례 (1) 개식 (2) 성년자 배례 (3) 축사 (4) 성년선서 및 서명 (5) 성년선언 및 서명
(6) 조례 및 주례의 혼화 (7) 성년자 배례 (8) 폐식

나. 집단 성년례 (1) 개식 (2) 국민의례 (3) 성년자 호명 (4) 성년자 경례 (5) 주례의 혼화 (6) 성년선서 및 서명
(7) 성년선언 및 서명 (8) 내빈 축사 및 답사 (9) 성년자 내빈에 대한 경례 (10) 폐식

2. 성년선서

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을 있게 하신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할 것과 국가의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하여 성년으로서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

3. 성년선언

성년자 ○ ○ ○

생년월일 년 월 일

그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자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신성한 의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선서하였으므로 성년이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년 월 일

주례 ○ ○ ○ (서명 또는 인)

〈표 1〉 현행 집체성년례의 개요

구분	문화관광부	성균관 여성유도회	숙명여자 대학교	대진대학교	경원 전문대학	오산 전문대학
시행연도	1997	1996	1998	1999	1999	1999
시 기	만 20세	만 20세	대학2학년	만 20세	대학2학년	대학2학년
형 식	개별/집체	개별/집체	집체 + 은혜제	집체	집체	집체
장 소	가정 또는 집단	가정 또는 집단	학교	학교	학교	학교
성년자 대표의 복식	남자)유건 도포 여자)한복	남자)유건 도포 여자)한복	남자)유건 도포 여자)한복	남자)유건 도포 여자)한복	남자)유건 도포 여자)한복	남자)유건 도포 여자)한복
소요시간	15분	20분	1시간 40분	1시간	1시간	1시간

〈표 2〉 현행 집체성년례의 절차

구분	문화 관광부	성균관 여성유도회	숙명여자 대학교	대진 대학교	경원 전문대학	오산 전문대학
절차	거례선언 상견례 삼가례 초례 수훈례 성년선언 의식 종료	거례선언 국민의례 일동경례 성년자 경례 문명 다짐 성년선서 성년선언 큰손님수훈 내빈 축사 주인 인사 성년자 경례 일동경례 필레선언 특강 축하행사	거례선언 국민의례 주최축인사 총장축사 1부 전통성년례 시연 큰손님맞이 일동경례 성년자경례 문명 다짐 성년선서 성년선언 큰손님수훈 내빈축사 주인인사 성년자경례 일동경례 필레선언 특강 사랑의 편지 낭독-모녀 2부 학생공연 학생과 학부모 의 장기자랑 교가제창 필레선언	거례선언 큰손님맞이 성년자입장 일동경례 성년자경례 문명 다짐 성년선서와 서명 성년선언과 서명 술의 의식 큰손님 수훈 성년자 경례 일동경례 필레선언	개회사 국민의례 학생처장 인사 총장축사 전통성년례 시연 큰손님맞이 일동경례 성년자경례 문명 다짐 성년선서 성년선언 큰손님수훈 내빈축사 가족인사 일동경례 특강 축하행사 필레선언	개회사 학장축사 총학생회장 인사 여성교양학회 회장인사 빈맞이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 초례 자(字)를 일러 줌 성년자 경례 성년선서 축하공연 필레선언

대식 성년례만 치렀다. 그 이듬해부터는 부모와 연계하여 문화적·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초대한 자리에서 학교측의 주최로 전통관례를 시연하고 이후 집체성년례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성년례의 새로운 양식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성년례의 의의

성년례는 오랜 역사를 통해 계승되어 온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일생동안 거치는 대표적인 통과례인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그 첫 번째 관문에 해당된다. 『예기(禮記)』에 따르면 “무릇 사람이 사람되는 바는 예(禮)인데 이는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얼굴빛을 온후하게 하며 항상 말을 조심하는 데 있으므로 관(冠)이란 예(禮)의 시(始)가 된다(禮記)”고 하여 관례를 예(禮)의 시작으로 보았다.

고려말에 비롯된 『관례(冠禮)』 또는 『계례(笄禮)』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성년이 되는 상징으로 성년남자에게는 의복과 함께 머리에 관(冠)을 씌워주고, 여자에게는 비녀(笄)를 꽂아주던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혼례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치러야 할 중요한 의례로 여겼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관례는 아버지가 주인이 되어, 여자의 계례는 어머니에 의해 가족적으로 행해졌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면 남자는 20세에 관례를 치러 성인의 예법, 즉 자식으로서 아우로서 신하로서 연소자로서 해야 할 행실을 그 사람에게 권면 하려는 것이었으나 관례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효경(孝經)과 논어(論語)를 이해한 15세 이상의 아이로 관례의 시기를 정하고 있다. 『예기(禮記)』에도 “20의 나이가 되면 관을 쓴다”라는 기록을 통해 볼 때 신체적인 성장이나 변화를 중시하여 연령을 그 기준으로 삼은 듯 하다. 부연하면, 동양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는 양(陽)에 속하며 20은 음(陰)이 되므로 20세에 관(冠)을 쓴 음(陰)으로 양(陽)을 이루는 뜻이고, 여자는 음(陰)에 속하며 15는 양(陽)이므로 15세에 계(笄)를 함은 양(陽)으로 음(陰)을 이룬다는 음양조화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15-20

세를 성인이 되는 데 필요한 행동규범을 충분히 몸에 익힐 수 있는 시기 (박대순, 1987)로 보고 관·계를 행한 듯하다. 또한 관례 시에 자(字)를 지어줌으로써 성인으로서 새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을 존중하며 예절을 지킬 줄 아는 새로운 인간임을 각성케 하였다(이정옥, 1984). 또한 주위의 어른들도 이들에게 ‘해라’라는 낮춤말씨가 아닌 ‘하계’라는 보통말씨로 높여 주었고 이름 대신 자(字)를 불렀으며 또한 이 들로부터 절을 받을 때에도 앉아서 받지 않고 답배(答拜)를 해 주어(김득중, 1997) 성인으로서 예우를 해 주었다.

관례는 외적인 의미의 소멸(어린이의 신분)과 성취(어른의 신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환기적인 과정이라고 김상보(1989)는 규정하고 성년식의 교육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고역의 순간을 체험함으로써 자제와 강의(剛毅)의 습관을 가질 수 있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처세할 나이가 되면 책임능력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의식을 치름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한다. 둘째, 권리 면에서 볼 때 성년이 되기 전에는 제한을 받아 불완전한 상태이었으나 성년이 됨으로써 한몫의 정당한 권리를 향유함과 아울러 신성한 의무를 지게 되는 권리 주체로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성인이란 장차 자기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년례는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 성인의 도리를 익히는 성인사회로의 진입과정이다. 즉 육체적으로 성숙한 단계에서 엄숙한 의식을 통해 이를 확인시켜 주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복식의 변화를 주어 내적 정신의 성장과 변화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성인으로서의 몫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축하하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성년례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성년례에 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련 저서를 포함시켜 성년례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관례를 다룬 대표적인 고례(古禮)의 문헌으로는 중국 주자의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조선중기 이

후 이재의 사례편람(四禮便覽), 김장생의 가례집람(家禮輯覽) 등을 들 수 있으며 주로 관·계례의 절차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 중 사례편람과 가례집람에 제시된 관례는 그 절차는 비슷하지만 저술연대에 따라 성년례의 시기나 복식에 차이를 보이며 자세한 도설(圖說)이 실린 점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이후 현대에 출간된 전례연구위원회(1996), 김득중(1997)에서는 현대식 성년례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후 이정우 외(1998) 등이 저술한 예서(禮書)에서는 전통 관·계례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현대의 성년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 장철수(1975-1979)는 각 지방에 따른 관례를 심층적으로 상세하게 연구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례풍속에 대한 연구의 깊이를 더했으며, 이광규(1991)는 사례편람과 실제 관례를 올려본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의견 등을 사례조사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은 관례 또는 성년례를 주제로 삼아 이루어진 논문들로서 박대순(1987)은 상하계층에 따른 조선시대 관례를 고찰하여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관례의 풍속을 제시하였다. 김상보(1989)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나라 전통관례의 유래, 성격, 절차, 구조 등을 통해 성년식을 재조명하고 문헌고찰을 이용하여 성년식의 도덕적, 종교적, 실제적인 효능의 교육적인 의의를 규정하였다. 또한, 조희진(1993)은 조선시대 관·계례의 절차를 중심으로 한 문헌고찰과 1985년 전주 시내에서 이루어진 김환재 조카들의 관·계례에 대한 사례조사를 병행한 후 성균관 청년유도회의 성년례 모델을 절충식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조희진·김정신(1998)은 대학에서의 집단 성년례의 실시를 목적으로 전통관례와 현행 성년례를 비교 분석하여 집단성년례의 모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이정우·김연화·김경아(1999)는 전통예서에 대한 문헌고찰과 함께 현 사회단체 및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성년례 절차를 총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후 앞으로 개선점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앞으로의 성년례 모델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양적으로도 관례에 대한 연구가 폭 넓지 못할 뿐 아니라 대부분 문헌고찰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바람직한 성년례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제로서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에 성년례에 참가한 당사자들에 대한 실증·경험적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고찰함과 동시에 1998년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치러진 성년례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중 기제가 불충분하거나 신뢰성이 낮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262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PC WIN을 이용하여 빈도·백분율·평균·표준편차·ANOVA·t-검증·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등을 산출하였다.

측정도구는 성년례에 참여한 학생들이 인지하는 성년례 행사의 필요성과 행사에 대한 만족도 및 성년례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 설문지는 선행연구가 적은 관계로 다양한 측면들에 접근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들과 폐쇄형 질문들을 혼합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참가 대학생이 인지한 성년례에 대한 제반설문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참가 대학생이 인지한 성년례에 대한 필요도 및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참가 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라 성년례의 필요도 및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 참가 대학생이 인지한 성년례의 필요도와 만족도간에는 상관이 있는가?

Ⅳ. 연구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3>과 같다. 우선, 참가 대학생들의 전공은 인문계열 26.7%, 사회계열 19.8%, 자연계열 21.4%, 가정계열 14.5%, 예체능계열 17.6%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학년은 1학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독립변인	구 분	빈 도(%)	독립변인	구 분	빈 도(%)
전공	인문계열	70(26.7)	학년	1학년	64(24.4)
	사회계열	52(19.8)		2학년	101(38.5)
	자연계열	56(21.4)		3학년	36(13.8)
	가정계열	38(14.5)		4학년	61(23.3)
	예체능계열	46(17.6)		계	262
	계	262			
주성장지	대도시	175(68.1)	성년례 경험여부	무	235(90.4)
	중소도시	82(31.9)		유	25(9.6)
	계	257		계	260
예절교육 경험여부	무	132(50.6)	매스컴에서 성년례 접촉여부	무	198(76.4)
	유	129(49.4)		유	61(23.6)
	계	261		계	259
학교생활 만족도	하	90(34.6)	행사참여 태도	하	76(29.2)
	중	139(53.5)		중	125(48.1)
	상	31(11.9)		상	59(22.7)
	계	260		계	260

* 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응답에서 비롯된 것임

년 24.4%, 2학년 38.5%, 3학년 13.8%, 4학년 23.3%로 올해 성년이 되는 2학년 학생들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주성장지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68.1%, 31.9%로 대도시에서 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절교육 경험여부는 무 50.4%, 유 49.2%로 나타났다. 또한, 성년례 경험과 매스컴에서 성년례 접촉여부는 각각 무 90.4%와 76.4%, 유는 9.6%와 23.6%로 거의 경험하거나 접해 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직접적으로 경험은 못했지만 TV·신문 등의 매스컴의 홍보로 성년례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참가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하 34.6%, 중 53.5% 상 11.9%였으며, 행사참여 태도는 하 29.2%, 중 48.1%, 상 22.7%로 약 7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2. 성년례의 제반사항에 대한 참가대학생의 의견

성년례를 치른 후 참가대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우선 성년례를 치르는 적당한 시기에 대한 문항은 학년에 관계없이 만 20세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8.9%로 지배적이었다. 이는 1999년 국가에서 규정한 성년례의 시기를 만 19세 이상으로 한 지침과는 차이가 있지만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던 1998년 당시의 성년 시기와는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 보편적인 만20세를 성인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년례를 시연한 소요시간과 관련하여 대체로 적당함 49.2%, 길음 47.0%로 양분되었는데 행사시간이 길다고 느낀 학생들은 전통 관·계례와 현대 성년례를 모두 시행한 까닭에 소요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여겨진다. 행사방식은 전통 관·계례와 현대 성년례를 모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7.4%로 과반수를 넘어 본 행사가 전통 관·계례의 경건함과 현대 성년례의 일치감이 잘 어우러져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고 사료된다. 행사 참여 후 성년례에 대한 관심이 약간 생김 44.0%, 많이 생김 26.1%로 나타나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성년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

〈표 4〉 성년례에 대한 제반설문에 대한 참가대학생이 인지한 일반적 경향

문항	구분	빈도(%)	문항	구분	빈도(%)	
성년례 시기	만20세인 2학년	87(33.2)	행사 참여후 성년례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김	68(26.1)	
	만 20세 모두	128(48.9)		약간 생김	115(44.0)	
	2학년 모두	21(8.0)		그저 그림	78(29.9)	
	원하는 학생	4(1.5)		계	261	
	대학입학식과 동시에	22(8.4)	행사 참여 후 성년례에 대한 이해도	많이 이해함	87(33.2)	
계	262	약간 이해함		126(48.1)		
성년례의 소요시간	적당함	129(49.2)		그저 그림	49(18.7)	
	짧음	10(3.8)		계	262	
	길음	123(47.0)	은혜제와의 결합여부	훨씬 효과가 높음	150(61.7)	
	계	262		분리하는 것이 좋음	93(38.3)	
성년례의 행사방식	전통	27(11.4)		계	243	
	현대	53(22.4)		현재의 상업화된 선물	바람직함	95(37.5)
	전통과 현대	136(57.4)	바람직하지 않음		105(41.5)	
	새로운 양식	21(8.9)	생각해 본 적 없음		53(20.9)	
계	237	계	253			
추천 할 만한 선물	약세사리	21(18.6)	흥미로웠던 프로그램	전통 성년례	119(73.9)	
	책, 다이어리, 학용품	28(24.8)		2부 행사	35(21.7)	
	화장품	12(10.6)		부모님과 함께	2(1.2)	
	거울, 빗	7(6.2)		현대 성년례	3((1.9)	
	꽃	7(6.2)		성년선언식	2(1.3)	
	옷	11(9.7)		계	161	
	기타	21(18.6)		생략해도 좋은 프로그램	2부 행사	57(44.2)
	없어도 됨	6(5.3)			전통 성년례	18((14.0)
계	113	특강	13(10.0)			
유익했던 프로그램	전통성년례	97(68.8)	현대 성년례		4(3.1)	
	특강	19(13.5)	없음		28(21.7)	
	2부 행사	11(7.8)	기타		9(7.0)	
	현대 성년례	6(4.3)	계		129	
	부모님과 함께	4(2.8)	이해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전통성년례	52((46.9)
	성년선언식	4(2.8)		특강	13(11.7)	
계	141	2부행사		3(2.7)		
		없음		43(38.7)		
			계	111		

* 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응답에서 비롯된 것임

(70.1%)함을 알 수 있었다. 성년례에 대한 이해도의 문항에서도 행사 후 약간 이해함 48.1%, 많이 이해함 33.2%로 나타나 성년례 행사가 성년례를 이해(81.3%)하는 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가정의례인 성년례는 단순히 이론적인 면에서의 지식 전달 뿐 아

니라 실제로 실행해 볼 수 있는 실습위주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숙명여자 대학교에서 최초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성년자의 축하행사인 성년례와 아버지날 감사행사인 은혜제를 결합하여 시행한 결과 성년례를

은혜제와 결합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는 의견이 61.7%로 나타나 성년례 행사에 있어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 전통 관·계례에서 주관자였던 부모의 역할이 현재 학교에서만 치러 질 경우 부모의 역할이 성년례 주관자가 아니고 단순히 참여하는 것으로 축소된 점이 있었다. 그러나 대학 주최로 성년례 행사를 치루더라도 교수와 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면서도 현대사회에 적합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의 상업화된 성년례 선물관습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41.5%였다.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추천하고픈 선물내역과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추천하고 싶은 선물내역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책, 다이어리, 학용품 및 액세서리를 받았으면 하는 의견이 24.8%, 18.6%로 각각 우세하였으며, 기타 상품권, 지갑, 액자, 다기 등의 의견도 있었다. 특히 액세서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한 데 기인한 결과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넓혀 남학생들의 선물 선호도 파악과 함께 성년례를 기념할 만한 품목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결과, 전통 관·계례의 시연의 경우 용어 파악 등의 이유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프로그램(46.9%)으로 지적된 동시에 유익(68.8%)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73.9%)인 것으로 나타나 시연에 앞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생활예절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정우·김연화(1998)의 연구결과, 대학생들은 생활예절 과목 수강 전에는 가정의례에 대한 관심이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수강 후에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관심이 수강 전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자녀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연구한 박계홍(1989)의 연구 결과 다수의 대학생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과거 조상들의 생활양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례

생활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제일 높다고 한 임혜경·정지영(1997)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 부모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낮은 수치이지만 학생들의 관심이 있음을 볼 때,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전통관례에서 성년자는 축사를 통해 어린 마음을 버리고 어른스러워질 것을 당부 받고 다짐케하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관·계자(성년자)가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느낄 수 있도록 가족, 부모, 친지들의 축하와 격려 및 관심이 중요함을 살려 성년선서나 성년선언문의 내용을 현대식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한 선행연구(조희진, 1993; 이정우·김연화·김경아, 1999)에 근거해 볼 때 성년자 이외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2부 행사를 마련하여 과거 전통관례에서 삼가례(三加禮)의 행사가 끝난 후 행해졌던 축하연인 초례(醮禮)의 의미를 이어갔으면 한다.

3. 참가 대학생이 인지한 성년례에 대한 필요도 및 만족도

1) 참가 대학생이 인지한 성년례에 대한 필요도

〈표 5〉 참가 대학생의 성년례에 대한 필요도

구 분		M	SD
필요도	성년례를 치르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2.23	.68
	성년례를 대학에서 치르는 것은?	2.34	.67
	전 체	2.28	.58

* 3점 만점

〈표 5〉에서 보듯이, 참가 대학생이 인지한 성년례에 대한 필요도의 전체적인 경향은 2.28(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76점)로서 다소 높게 나타나 성년례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례이고 대학에서 성년례 행사를 치루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

행연구(정지영·주영애·안현숙, 1996; 이정우·김연화, 1996, 1998) 결과 가정의례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또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 결과 가정의례가 실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의례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참가 대학생의 성년례에 대한 만족도

〈표 6〉과 같이 참가 대학생의 성년례에 대한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2.14(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71점)로서 점수의 범위가 1점-3점임을 감안할 때 중간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나타냈다. 기존의 모든 선행연구(김상보, 1989; 조희진, 1993; 조희진·김정신, 1998; 이정우·김연화·김경아, 1999)에서 현대 생활에 합당한 성년례의 모델정립을 제안하고 있는데, 본 행사의 만족도가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현대의 바람직한 성년례 모델의 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사려된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시설이나 장비 2.61, 행사의 진행순서 2.30, 유인물 2.17, 선물 2.13, 행사내용 2.11, 의식을 새롭게 하는데 2.14, 기대했던 것에 비해 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사시 투여된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 관·계례의 시연시 철저히 고종된 의복과 다양한

소품 및 장비 등이 준비된 결과라 여겨진다. 더불어, 이론이 밀반침된 생활예절 강사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 하에 행사가 이루어진 결과로 사려된다. 참여 대학생들의 전공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인물을 나누어 준 것도 행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전통관례를 관람하고 현대식 성년례를 치렀음에도 의식을 새롭게 한다는 항목에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현대식 성년례가 너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대표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위엄성이 격하(문화재보호재단, 1987)되고 성년자가 진지하게 성인 됨의 책무를 느끼게 하는 경험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선행연구(조희진, 1993; 김정신·조희진, 1998; 이정우·김연화·김경아, 1999)의 한계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집체 성년례를 치를 때에는 보다 깊은 내면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경건하며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격려하여 희망찬 인생설계를 할 수 있는 계기(김상보, 1989)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프로그램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배경변인에 따른 참가대학생이 인지한 성년례의 필요도 및 만족도

1) 참가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성년례의 필요도

배경변인(전공, 학년, 성장지, 성년례접촉경험여부, 예절교육 경험여부, 매스컴에서 성년례 접촉여부, 학교생활만족도, 행사참여태도)에 따른 참가대학생들의 성년례의 필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생활만족도($P<.05$)와 행사참여태도($P<.001$)에 따라 성년례 필요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즉, 학교생활만족도가 하(下)인 집단보다 중(中)인 집단이 행사참여태도의 경우 하집단 보다 중집단이, 중집단 보다 상집단에서 성년례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이정우·김연화, 1996)에서와 같이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업참여태도가 성실할수록 가정의례를 포함하여 예절

〈표 6〉 참가 대학생의 성년례에 대한 만족도

구 분	M	SD
행사내용	2.11	.69
행사의 진행순서	2.30	.57
시설이나 장비	2.61	.53
유인물	2.17	.52
기대했던 것에 비해	1.74	.62
선물	2.13	.47
의식을 새롭게 하는 데	1.97	.64
만족도 전체	2.14	.36

* 3점 만점

〈표 7〉 참가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성년례의 필요도

독립변인	필요도	빈도	하위영역				전 계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학에서 치르는 것이?		M	D
			M	D	M	D		
전 공	인문계열	64	2.21		2.34		2.27	
	사회계열	48	2.31		2.38		2.33	
	자연계열	55	2.22		2.18		2.20	
	가정계열	37	2.32		2.58		2.46	
	예체능계열	46	2.13		2.26		2.20	
	계 및 F	250	.63		2.21		1.52	
학 년	1학년	63	2.21		2.20		2.20	
	2학년	95	2.19		2.34		2.26	
	3학년	33	2.24		2.45		2.35	
	4학년	59	2.32		2.41		2.36	
		계 및 F	250	.50		1.43		1.02
성장지	대도시	167	2.23		2.34		2.28	
	중소도시	78	2.23		2.34		2.29	
	계 및 t	245	-.17		.02		-.09	
성년례 접촉경험 유무	없음	223	2.24		2.35		.30	
	있음	25	2.20		2.24		.64	
	계 및 t	248	.30		.64		.49	
예절교육 경험유무	없음	126	2.35		2.39		2.37	
	있음	123	2.11		2.28		2.19	
	계 및 t	249	2.77		1.30		2.45	
매스컴에서 성년례 접촉여부	없음	188	2.29		2.34		2.31	
	있음	59	2.10		2.36		2.23	
	계 및 t	247	1.86		-.23		.946	
학교생활 만족도	하	83	2.13		2.15	A	2.14	A
	중	134	2.28		2.46	B	2.37	B
	상	31	2.26		2.29	AB	2.27	AB
	계 및 F	248	1.30		5.79**		4.07*	
행사참여 태도	하	70	1.97	A	2.06	A	2.01	A
	중	122	2.21	B	2.34	B	2.27	B
	상	56	2.61	C	2.69	AB	2.65	C
	계 및 F	248	25.26***		16.06***		22.91***	

※ 3점 만점

* P < .05, ** P < .01 *** P < .001

전 영역에서 수강 후에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성실하고 적극적인 학생의 태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참가 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성년례 만족도 배경변인(전공, 학년, 성장지, 성년례접촉경험여부, 예절교육경험여부, 매스컴에서 성년례 접촉여부, 학교생활만족도, 행사참여태도)에 따른 참가대학생들

〈표 8〉 참가 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성년례 만족도

독립변인	만족도	빈도	하 위 영역														만족도 전체	
			행사내용		진행순서		시설, 설비		유인물		기대에 비해		받은 선물		성인의식 자각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전공	인문계열	63	2.06	A	2.36		2.60		2.14		1.75		2.11		1.97		2.11	
	사회계열	48	2.14	A	2.34		2.67		2.18		1.75		2.19		1.92		2.16	
	자연계열	48	2.02	A	2.26		2.67		2.09		1.67		2.22		1.85		2.12	
	가정계열	34	2.43	B	2.41		2.53		2.33		1.86		2.04		2.08		2.23	
	예체능계열	39	2.00	A	2.13		2.53		2.15		1.69		2.05		2.09		2.09	
	계 및 F	232	2.70*		1.17		.86		1.32		.62		1.46		1.21		.95	
학년	1학년	55	2.08		2.23		2.63		2.04	A	1.61		2.17	AB	1.84	A	2.09	
	2학년	92	2.13		2.32		2.63		2.15	A	1.72		2.02	A	1.89	A	2.02	
	3학년	31	2.11		2.31		2.50		2.38	B	1.85		2.17	AB	2.03	AB	2.19	
	4학년	54	2.10		2.35		2.61		2.20	AB	1.84		2.25	B	2.22	B	2.23	
		계 및 F	232	.07		.54		.57		3.44*		1.87		3.42*		4.67**		2.25
성장지	대도시	156	2.08		2.30		2.57		2.16		1.74		2.12		1.95		2.12	
	중소도시	72	2.15		2.32		2.67		2.19		1.73		2.18		2.01		2.17	
		계 및 t	228	-.74		-.24		-1.43		-.43		.10		-.90		-.75		-.91
성년례 접촉경험 유무	없음	210	2.11		2.32		2.62		2.17		1.75		2.15		1.98		2.14	
	있음	21	2.08		2.13		2.52		2.13		1.64		1.96		1.88		2.06	
		계 및 t	231	.19		1.58		.89		.40		.83		1.87		.74		1.00
예절교육 경험유무	없음	118	2.21		2.32		2.67		2.23		1.77		2.16		2.05		2.20	
	있음	114	2.01		2.28		2.55		2.10		1.72		2.10		1.89		2.07	
		계 및 t	232	2.29		.57		1.83		2.01		.63		.99		2.07		2.77
매스컴에서 성년례 접촉여부	없음	177	2.13		2.30		2.63		2.18		1.74		2.16		1.98		2.15	
	있음	53	2.07		2.31		2.56		2.16		1.73		2.02		1.93		2.08	
		계 및 t	230	.61		-.18		.80		.16		.08		2.02		.54		1.10
학교생활 만족도	하	78	2.00		2.20		2.52		2.17		1.66		2.05		1.81	A	2.05	A
	중	124	2.15		2.36		2.67		2.17		1.76		2.19		2.04	B	2.17	AB
	상	29	2.26		2.32		2.57		2.15		1.90		2.10		2.13	B	2.21	B
		계 및 F	231	1.97		2.11		2.43		.03		1.97		2.58		4.76**		3.81*
행사참여 태도	하	69	1.84	A	2.21	A	2.57		1.98		1.51		2.10		1.67	A	1.96	A
	중	110	2.12	B	2.27	A	2.60		2.19		1.74		2.14		1.98	B	2.15	B
	상	52	2.43	C	2.50	B	2.67		2.38		2.05		2.16		2.36	C	2.34	C
		계 및 F	231	13.00***		4.78**		.60		10.52***		13.89***		.28		22.45***		20.26***

* 3점 만점

* P < .05, ** P < .01, *** P < .001

의 성년례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년례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생활 만족도(P<.05)와 행사

참여태도(P<.001)로 나타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고 행사참여태도가 높은 집단이 성년례 행사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생활에 만족하

는 학생일수록 가정의례를 포함한 생활예절 수강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이정우·김연화(1996)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다.

하위영역별로 볼 때 의식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 다른 학년보다 특히 4학년에게 매우 유의($P < .001$)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앞두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데 성년례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사 내용과 관련하여 가정계열 학생들은 타 계열 학생보다 이미 관련 교과목에서 전통 관·계례를 포함한 가정의례를 접할 기회가 많으므로 내용파악이 용이하여 만족도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5. 참가대학생의 성년례의 필요도와 만족도간의 관계

〈표 9〉와 같이, 참가 대학생의 성년례의 필요도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적 상관관계($P < .001$, $r = .5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간에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즉 성년례 행사가 삶의 과정에서 통과의례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대학에서 성년례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행사내용이나 성인으로서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데 만족하였으며 행사 진행 순서에도 만족하였다. 특히 성년례의 필요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성인으로서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 비해 행사진행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도 관계가 수준이 낮은 점은 앞으로 연구 검토를 통해 보완해야 함을 시사한다.

VI.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성년례를 치른 참가대학생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성년례를 치르는 적당한 시기는 학년에 관계없이 만 20세에 하는 것이 좋으며 전통 관·계례와 성년례를 동시에 시연하는 행사방식을 선호하며 성년자의 축하 행사인 성년례와 어버이날 감사 행사인 은혜제를 결합한 양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불 때 전통 관계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통 관·계례 시연 또는 현대 문화의식에 맞는 전통의 형식과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의 상업화된 성년례 선물관습에 대하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수에 이르므로 마치 성년례가 선물이나 받는 행사 정도로 생각하는 왜곡된 성년례 문화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 또한 성년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성년례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증대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행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천하고 싶은

〈표 9〉 참가 대학생이 인지한 성년례의 필요성과 만족도간의 관계

필요도		만족도	하 위 영 역			만족도 전체
			행사내용 만족	행사 진행순서 만족	성인으로서 의식을 새롭게 하는데 만족	
하위 영역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함	.40***	.27***	.50***	.49***	
	대학에서 성년례 치르는 것이 필요함	.35***	.19***	.43***	.46***	
필요도 전체		.44***	.27***	.54***	.56***	

※ *** $P < .001$

선물내역은 책, 다이어리, 학용품 및 악세사리라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전통관·계례의 경우 용어파악 등의 이유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유익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낮은 비율이지만 현대식 성년례에서 성년선서와 성년선언이나 부모님과 함께 등의 프로그램처럼 부모님과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부분에 관심을 보이는 결과로 볼 때, 보다 참여적인 2부 행사의 기획이 연계·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참가 대학생이 인지한 성년례에 대한 필요도와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중간점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본 행사의 모델이 현대 성년례의 새롭고 효과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제시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시설이나 장비, 행사의 진행순서, 유인물, 선물, 행사내용, 의식을 새롭게 하는데, 기대했던 것에 비해 높은 만족을 보여 전통관례의 시연시 철저히 고증된 의복과 다양한 소품 및 주취측의 세심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의식을 새롭게 하거나 기대했던 것에 비해 등의 문항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집체성년례를 치를 경우 야기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참여적 프로그램으로의 적극적인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참가대학생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성년례의 필요도와 만족도는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행사참여태도가 적극적인 학생들일수록 성년례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의식을 새롭게 하는데 있어 4학년에게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앞두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데 성년례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2000년 현재 대부분 만 19세에 성년례를 행하고 있지만 대학에서의 성년례는 나이에 관계없이 학교생활 적응이 이루어진 후 2학년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성년례의 내용을 관련 타과목에서 접한 경험이 있는 가정계열 학생들이 타계열 학생보다 행사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사전 성년례에 대한 지식이 행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참가대학생이 인지한 성년례의 필요도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나 성년례 행사가 삶의 과정에서 통과의례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성년례 행사 참여만족도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년자에게 성인으로서의 책무감을 지니고 성인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규범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성년례 문화가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방송 등의 매스컴과 인터넷 홍보를 통해 성년례의 필요성과 관심을 고취시키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성년례가 생활 속의 의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년례의 필요도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학교생활 관련변인으로 나타난 만큼 학교차원에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생활예절 교양과목의 실습의 한 행사로 이루어질 때 책임감 있는 성년자가 되도록 하는 선도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가정학 개설 교양과목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끝으로 대학생 뿐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성인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생의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개인적인 혼란감을 줄이고 확고한 정체감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성년례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성년례가 교육적·사회적인 통과의례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김득중(1997). 실천예절개론. 교문사.
- 2) 김상보(1989). 한국 전통관례의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3) 민제(1982). 冠禮. 한국문화사대계 I.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4) 박대순(1987). 조선시대 관례의 사적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5) 성년례 모델개발위원회(1998). 성년례 어떻게 하는가-그 준비와 절차. 성균관 청년유도회 중앙회 (문화체육부 후원).
- 6) 숙명여자대학교(1998). 1998년 청파 은혜제. 성년례 행사계획 및 시나리오.
- 7) 우봉이씨대중회 편역(1992). 李緯. 四禮便覽. 이화문화출판사.
- 8) 이광규(1974). 통과의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 9) 이정옥(1984). 한국의 四禮服飾에 관한 연구. 영남대논문집. 제 8집.
- 10) 이정우외(1998). 생활문화와 예절.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 11) 이정우·김경아(1997). 기혼 여성의 생활예절 가치의식과 생활예절수행. 생활과학연구지 12호.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과학연구소.
- 12) 이정우·김연화(1996). 대학의 생활예절교육의 실제 및 수강효과에 관한 연구-숙대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지. 창학 90주년 특집호.
- 13) _____(1998). 대학생의 생활예절 관심도 및 수강 후 태도·행동변화에 대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제 36권 12호. 161-173.
- 14) 이정우·김연화·김경아(1999). 전통·현대의 성년례 비교 및 바람직한 성년례의 방향. 생활과학연구지 제14호.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과학연구소.
- 15) 전경수역. A. 반 개념(1985). 通過儀禮. 을유문화사.
- 16) 장덕순(1970). 한국의 풍속, 상, 관혼상제. 한국문화재관리국 .
- 17) 장철수(1995).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 18) 정지영·주영애·안현숙(1996). 대학생의 예절교육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3집
- 19) 전례연구위원회(1996). 우리의 생활예절. 성균관
- 20) 조희진(1993). 성년례의 형식과 절차. 오산전문대학 논문집 13집.
- 21) 조희진·김정신(1998). 집단 성년례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 5집. 141-172.
- 22) 최남선(1948). 조선상식-풍속편. 동명사.
- 23) 최덕원(1987). 들들 신앙고. 한국민속학 20. 민속학회.
- 24) 한국정신문화원(1997). 朝鮮時代儀禮資料集成.
- 25) 보건복지부(1999. 2. 8).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6) 주자가례(朱子家禮)
- 27) 가례잡람(家禮輯覽)
- 28) 예기(禮記)